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16:17~20)



성령 받은 자, 영적 의사면허증을 받은 자다

어느 집사님이 제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종합병원장’입니다. 그분 말인즉 “목사님은 암도, 감기도, 정신병도, 허리 디스크도 다 치료하니 종합병원장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들어보니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종합병원에 가면 내과, 외과. 신경과, 산부인과, 정신과..., 여러 진료과목이 있고, 각각 전공한 전문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병이든 다 고칩니다. 병명은 딱 하나 귀신이고, 치료법도 예수 이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입니다. 키르기스스탄 집회를 앞두고 거리 곳곳에 광고 포스터를 붙였는데, 거기에 ‘병을 고친다’는 문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일로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재판장이 저에게 “의사 면허가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없지요. 그러니 그들은 불법이라고 했고, 저에게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여러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영적 의사면허증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합법적인 면허증입니다. 이 영적 의사면허증은 어떻게 발급되느냐? 성령을 받으면 발급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10:38).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신 후에 능력을 행하셨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웠으며(행3),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일으켰고, 욥바의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에게 육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아셨기에 공생애 기간 동안 병 고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러셨거든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온다’고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적 의사면허증이 지급되는 거지요. “믿는 자

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16:17~18).

아셨습니까? 병 고치는 일은 예수님 당대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지금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 이초석 목사만의 전매특허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영적 의사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의사면허증은 진료과목과 무관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해 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않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눅4:40~41)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보니 해 질 녘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들이 예수께 나아오자 예수께서 손을 얹어 귀신을 쫓으니 그들이 떠나고 나음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면을 마태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더라”(마8:16)라고 묘사했습니다. 누가는 ‘각색 병’으로 표현한 것을 마태는 ‘귀신 들린 자’라고 했습니다. 곧 각색 병의 원인이 다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각색 병, 즉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감기부터 암 같은 불치병까지 모든 병은 귀신이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디가

아프냐?’ 묻지 않으시고,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고 시몬의 장모가 일어나 수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눅4:38~39). 병을 어떻게 꾸짖습니까? 병이 어떻게 떠나니까? 이는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병은 마귀의 추종자, 마귀의 졸개인 귀신의 짓입니다. 그 귀신만 쫓으면 감기부터 불치병까지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쫓는 방법은 총이나 칼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예수 이름으로 쫓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면 예수님도 잘못된 것이고, 그의 제자들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

게 말하자는 자들은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7:22~23)는 말씀을 들이미는데, 이걸 성경을 잘못 풀어도 한참 잘못 톤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했기에 그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법’이란 돈 받고 병을 고친다든지, 돈 받고 안수기도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권능과 복음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오직 은혜로 받은 것이니

은혜로 거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히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주권, 영적 의사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폐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사면허증이 있어도 의술을 쓰지 않으면 의술이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장도, 좋은 기술도 쓰지 않으면 다 녹슬고 맙니다. 성령의 의술도 예외가 아닙니다. 안 쓰면 녹슬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나 큰일이 생겨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감기 걸려도, 배가 아파도, 머리가 아파도, 심지어 의사가 손을 댄 불치병에도 귀신을 쫓아야 하는 겁니다. 다~~~ 귀신이니까요.

한 번 쫓으면 끝납니까? 아니요. 계속 쫓아야 합니다. 귀신이 들락날락하거든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마12:43~45). 불이 꺼지면 어둠이 바로 찾아오듯 성령의 불이 꺼지면 귀신이 열썩구나 하고 바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불을 밝혀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귀신을 쫓아 모든 병을 고쳐라

우리가 아플 권리나 이유가 없음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53:5). 그럼에도 우리가 병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잃었기 때문이며, 이는 성령을 소멸한 결과요, 성령의 소멸은 기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역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귀신을 쫓아 병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 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막9:28~29).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눅13:32)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늘 귀신을 쫓아내어 내 삶 속에 천국이 임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교단소식 ::

후배들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대가를 치르지 않은 꿈은 망상이다!

신학교 졸업식이나 목사 안수식 때면 총회장 목사님과 원로목사님들께서 귀한 권면을 해주신다. 목회를 하시며 직접 체득하신 경험을 전하시기에 들을 때마다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 그 권면을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언젠가 저런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선배가 될 수는 없을까?’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총회장님께서 해주신 가르침들을 깊이 묵상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정리하여 나 스스로와 다짐을 했다.

1. 모두에게 당당하자!

나는 하나님의 얼굴, 교회의 얼굴, 총회장님의 얼굴이다. 그러니 예의 없단 말은 듣지 말자. 무식하단 말도 듣지 말자. 능력 없단 말이나 ‘목사가 왜 저래?’하는 말 또한 듣지 말자. 주님과 스승의 얼굴에 금칠은 못헤드릴망정 먹칠을 할 수야 없지 않은가!

2. 티 내지 말자!

힘든 티 내지 말자. 싫은 티 내지 말자. 아픈 티 내지 말자. 궁색한 티 내지 말자. 목사는 성도들을 이끌어주고 챙겨줘야 할 견인차 역할인데 힘든 티, 싫은 티 팍팍 내서야 어찌하겠는가! 힘들어서 나를 찾는 성도들에게 나까지 부담을 줘서야 되겠는가!

3. 어제의 나와 경쟁하자!

멈춰선 자전거는 결국 넘어진다.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는 데도 힘이 들지 않는다

면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다. 나의 경쟁 상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어제의 나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성장한다. 도전은 생존이다!

4. 해야 할 일은 평소에 하자!

총회장님께 배우고 싶은 것은 너무나 많다. 능력도, 지혜도, 믿음도, 인간미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 목사님의 꾸준한 자기 관리, ‘꾸준함’을 닦고 싶다. 그래, 기도 와 독서, 성경 연구와 영혼 관리는 평소에 미리미리 해두자! 닥쳐서야 허겁지겁 허둥대지 말자. 아, 운동이 빠졌네?

5. 나만은 나 자신을 응원하자.

때때로 나조차 내 모습이 마음에 안 찰 때가 있다. 내 결정과 행동이 정말 한심해 보일 때도 있다. 성장이 얼마나 더딘지 답답할 때도 많다. 하지만 나조차 나를 비난하고 몰아붙인다면, 어느 누가 나를 응원하고 또 믿어주겠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주님은 ‘언제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다. 나 또한 나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자!

힘들 때건 잘 나갈 때건, 부끄러울 때건 인정받을 때건, 수시로 이 다짐들을 되새겨 본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언젠가 후배들 앞에 당당히 설 그 날을 기대하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을 잘 마무리해야할 시점이다. 당신은 귀한 말씀을 듣고 어떤 미래를 그리며,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가?

신현명 목사

지난 6일, 서울 청년부에서는 이시대 목사님을 모시고 젊은이를 위한 1일 부흥회가 있었다. 이날 이시대 목사님께서는 ‘내게 가치 있는 일에 대가 지불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다.

옛날에 어떤 왕이 많은 학자들에게 백성들이 잘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오라고 말한다. 학자들은 책 12권을 만들어서 왕 앞에 나간다. 다시 왕은 책 한 권으로, 종이 한 장으로, 마지막엔 짧은 한 문장으로 줄여 오라 명하는데, 그 한 문장은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였다. 인생사 무조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다. 돈이 인생의 목표라면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해야 하고, 명예가 인생의 목표라면 그 대가를 얻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공을 들여야 한다. 사계가 있듯 인생사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평안하고 꽃길 같은 봄날이 있는가 하면, 혹독한 어려움이 있는 겨울 같은 시절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그 시기를 잘 견뎌내야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떠나는 대가를 치렀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요셉은 인생의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

았다. 히브리서 11장과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전들은 예수라는 복음의 가치를 위해 시련과 고난, 바다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 유대인의 핍박 등, 많은 죽음의 순간들이 있었다. 하나님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 어떠하신가. ‘예수’라는 복음의 가치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좇았기에 오늘날 전 세계 오대양 육대주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집회에 참석한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 지금 청년의 때 피와 땀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말라고 조언하시며, 대가를 치른 만큼 인생에서 반드시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셨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6:7).

송현해 생도



:: 신앙논객 ::

:: 생명의 말씀 ::

신학원 종강예배

뱀의 머리를 잡아라!

지난 12월 5일, 예수중심제자신학원의 2025학년도 2학기 종강예배가 원장이신 이시대 목사님의 인도로 드려졌다. 특별히 이날은 목사님의 말씀에 앞서 생도 3명이 설교학 실습의 일환으로 모든 생도들 앞에서 위로와 권면, 교훈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여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첫 번째 주자였던 김정화 생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모아주신 생도들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격려했다. 두 번째 주자로 나선 김혜리 생도는 현재 교육전도사로 시무하고 있는 경기교회가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하게 된 에피소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복 받은 많은 믿음의 선전들과 총회장 목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간절히 찾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복과 사랑을 받아보자고 권면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주자인 어선웅 생도는 ‘공든 탑도 관리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주제를 가지고 생도들로 하여금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생도들이 되자고 역설했다. 생도들의 설교를 들으신 이시대 목사님께서는 설교한 생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한 학기 동안 학업과 봉사로 수고한 생도들의 노고를 치하하셨다. “방학기간 동안 영·훈·육 간에 강건하십시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십시오. 방학이라고 편히 새로운 것이나 다른 것 좀 배워보겠다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기웃기웃하면 다른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변질되게 마련입니다. 성경이라는 한 우물을 깊이 파십시오. 여러분의 영·훈·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설교를 하든, 상담을 하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장 목사님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우리 예수중심교단과 총회장 목사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예수중심교단의 제자들로서 그 정체성과 색깔을 확실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년제로 학제가 바뀌면서 1년 더 공부하게 되었음에도 순종함으로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 주어진 봉사에 최선을 다해주시 모든 교수진들과 생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신혁주 전도사

모든 문제는 해석에서 시작한다. 해석 잘하고, 말 잘해야 한다. 총회장 목사님의 심판번이다. 해석의 차이 때문에 방향성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뱀, 곧 마귀는 처음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집어넣었다. 곧바로 사람을 피해자로 인식시켰다. 그 부정 경험이 곧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타락)로 이어졌다. 인류뿐만 아니라 땅과 모든 만물에 그 죄의 결과가 확산되어 저주가 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물든 온 만물을 회복시키실 약속을 주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 모든 것의 시작(전제)이 중요하다. 뱀의 머리가 먼저 침투하는 순간 온 몸통이 자연스레 유입된다. 뱀의 머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 어느 공동체에 서건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순간의 분위기를 바꾸고 영적 공기의 흐름을 전복시키는 자들이 꼭 있다.

그래서 신앙은 ‘전제의 싸움’이라 하지 않는가? 모든 일의 첫 순간부터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뱀의 머리부터 잡아야 한다. 해석과 용어에 대한 이해가 먼저 바뀌어야 방향이 전환된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열 명의 정탐꾼이 뱀의 머리 역할을 했다. ‘메뚜기’라는 한 단어의 위력으로, 순간 온 백성에게 두려움의 영적 공기가 임해 밤새 통곡했다. 다시 ‘먹이’라는 한 단어로 분위기를 바꾼 두 명의 정탐꾼은 새 시대의 주역이 되었다.

중세 암흑시대의 영적 흑사를 끌어낸 종교개혁은 용어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바로 ‘단어 싸움’이고 ‘용어 개혁’이었다. 해석 잘하고, 말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어를 바꿔버리니, 영적 해방이 임했고, 개신교가 탄생한 거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만드시는 축복의 여정을 주신 것이다!

우리 삶은 영적 전쟁이 일상이다. 날아가던 새가 머리 위에 똥을 싸고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똥을 틀지지는 못하게 막아야 한다. 늘 묵상하던 부정적인 생각은 말이라는 옷을 입고 불현듯 밖으로 외출하니 말이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롬12:2). 우리가 늘 모든 일에 앞서서 뱀의 머리를 제압해야 하는 이유이다.

송직화 목사

:: 성경에서 배운다 ::

:: 신앙에세이 ::

집이 아닌 힘이 되는 순종

저는 업무상 직원 면접을 보는 일이 많습니다. 해가 갈수록 면접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최종 선발까지 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부터 말하고, 이에 직장이 맞춰줄 수 있는지를 묻는 특징이 있더군요. 반대로 입사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지원자들은 공통적으로 회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하는 데 공을 들이고, 성장과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기질을 가졌습니다. 설사 이 두 부류의 지원자가 함께 입사하더라도, 3년만 지나면 성장 정도, 받는 연봉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더군요.

신앙의 여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에 필요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실 때, 이에 순종하고 도전하여 성장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집’을 지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

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버거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도전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 역시 자신의 뜻과 싸우며 고민했고, 힘겹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귀한 사역을 이루었으니까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사실 언변의 부족함보다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네 입과 함께하겠다.”고 하시며 그를 설득하셨고, 모세는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이끈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왕비로 편안히 지낼 수 있었던 에스더는 유다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는 모르드개의를 들었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기에 삼일 금식까지 하며 왕 앞에 나아갔고, 결국 민족 전체를

구하고 왕실에서도 더욱 탄탄한 입지를 다질 수 있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고, 이미 사역자로서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세 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다시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었고, 이에 죄책감을 접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말씀하시며,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비록 그 길이 두렵고 버겁게 느껴질지라도, 그 부르심 속에는 언제나 성장과 생명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인명 집사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12)**

**좋은 두뇌도 쓰지 않으면 녹슬고
좋은 연장도 쓰지 않으면 녹슨다
성령의 은사도 쓰지 않으면 녹슨다** **—봉우**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사랑이 사랑을 낳다

타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권사님이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수소문 끝에 장성 기도원집회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께서 스스로 지교회회를 찾아오셔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권사님이 갑자기 아들을 잃고 큰 슬픔에 빠지셨습니다. 권사님은 총회장 목사님이 기도원에 오실 때마다 찾아가셨고, 목사님은 자식 잃은 권사님의 아픈 마음을 사랑으로 위로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총회장 목사님께서 권사님의 담당 전도사인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을 어머니처럼 잘 모셔라.” 어머니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권사님을 어머니처럼 섬겼습니다. 더욱이 총회장 목사님께서 글로 다 쓸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어머니와 우리 가정에 베풀어주셨기에 어머니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권사님께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권사님의 아픈 사연을 다 들어드리고, 보듬고 기도하셨습니다. 권사님의 안색을 늘 살피고, 전화도 자주 드렸습니다. 예쁜 옷을 보면 권사님이 생각나 사서 입혀드리기도 하고, 기도원집회가 끝나고 가족이 함께 식사할 때면 권사님을 꼭 모시고

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권사님의 환해진 얼굴만큼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권사님도 어머니의 진심을 아시고, 어머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살아갈 힘이 없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니를 딸처럼 사랑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전도하러 나가실 때마다 권사님께서 늘 함께하셨고, 교회에서 철야기도를 하실 때면 우리 가정을 향한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주시고, 어려움에도 함께 기도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권사님께 드린 사랑보다 받은 사랑이 더 크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지난 교회신문(1330호/2025.11.2)에 간증했던 것처럼, 부모님이 장애인 두 분을 집으로 모셔와 보살피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전도사 사역을 하는 동안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권사님께서 그분들을 기꺼이 돌봐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응급실에 실려가 입원했을 때도 권사님이 달려와 간병해주셨고, 그분들이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아 애타게 찾아다닐 때도 권사님은 함께하셨습니다.

장애인 한 분이 암에서 완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분이 암에 걸려 수술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부모님과 권사님은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권사님께서 천만 원을 수술비로 선뜻 내놓으셨습니다. 82세의 권사님에겐 매우 큰 돈이었지만, 권사님은 돈보다 사

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고 하시면서 오로지 앞에 걸린 그가 살아나기만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된 기도 응답하셔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가 속한 지교회회에서 금요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권사님께서 자식과도 같은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장애를 가진 그의 느린 발걸음에 맞추어 담임목사님께 다가가 인수받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총회장 목사님을 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목사님의 사랑이 어머니와 우리 가정에 흘러왔으며, 그 사랑이 권사님에게 전해져, 또 다른 사랑을 낳았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예수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발걸음 닿는 곳마다 예수님과 목사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요일 4:11~12).

정명관

동전의 양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동전의 양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숫자면이 위를 보고 있으면 그 동전은 숫자밖에 안 보이고, 형상면이 위를 보고 있으면 동일한 동전임에도 형상밖에 보이지 않는다. 마치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이고, 불행한 사람은 모든 것이 불행해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복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 행복한 순간이 있는 것이고, 불행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 불행한 순간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행복의 면과 불행의 면이 시시때때로 변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든, 마귀에 의해서든, 나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서든, 삶의 동전은 계속 튕겨진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결혼생활이 같은 사람임에도 비극이 되기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키우며 얻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행복만큼, 삶의 무게와 인내심의 한계, 그리고 부족한 부모로서의 자책도 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이 때로는 마음의 시험과 사람에 대한 실망, 또는 원하는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아 낙심되기도 한다. 하나님도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후 심히 기뻐하셨지만, 창조물 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 그 사람을 땅 위에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

지금 내 삶의 동전은 어느 면이 위를 보고 있을까? 행복과 평안의 면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면 된다. 고난과 고통의 면이 위를 보고 있다면 그 삶의 동전이 다시 튕겨져 뒤집힐 때까지 바짝 옆드려 버텨야 한다. 삶의 동전은 계속 튕겨지고, 어떤 면이 나오든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면 된다. 다른 이의 동전이 아닌 하늘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전7:14).

박찬영 집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량진 교육관기도회

노량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 (월, 화, 목, 토)
문의: 02. 533. 9191